

## 아세안 지역에 있어서의 표준화 동향 -ISO9000 시리즈의 도입상황-

### I. 머리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발표에 의하면, 1994년말까지 세계에서 70,517건의 ISO9000 시리즈에 관련되는 인증이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이 된 국가는 총 76개국에 이른다. 매년 취득 기업수는 50% 이상의 신장을 나타내고 있어, 매우 급속한 템포로 세계에 보급되고 있다.

아시아지역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수출지향형 공업화를 이룩하고 있는 ASEAN 각국에서는 주요 수출대상지역인 북미, 유럽지역의 수입자가 ISO9000 시리즈의 취득을 요구하는 추세 속에서 최근 열심히 그에 대한 도입을 꾀해 왔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1994년말 시점에서의 아세안 지역내의 ISO9000 취득기업수는 약 1,000개 였다. 현재 각국에서 도입촉진을 위한 체제정비도 착실히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도입기업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조사에서는 아세안 6개국 중 브루나이를 제외한 5개국에 대하여 ISO9000 도입촉진을 위한 국내체제의 정비상황 및 취득상황을 살펴

보았다. 전체적 상황을 개관해 보면, 아세안 각국 중에서 가장 일찍부터 ISO9000을 도입한 곳은 싱가포르로, 1988년에 ISO9000 시리즈의 등장과 거의 동시에 취득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로 1988년 10월에 제1호 취득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1994년말의 취득사업자 총수는, 말레이시아가 가장 많은 518개 사, 이어서 싱가포르가 363개 사, 필리핀이 54개 사, 태국이 40개 사, 인도네시아가 15개 사였다.

한편, 국내에서 심사·등록을 담당하는 인증기관의 정비상황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에서는 예전부터 ISO의 참가기관이고 또 각국에서의 국내표준 제정기관으로 되어 있던 SISIR(Singapore Institute of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TITS(Thai Industrial Standard Institute), DPS(Department of Products Standard)가 각각의 나라에서 담당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새롭게 담당기관인

★ 본 자료는 *Jetro Technology Bulletin*, 1995년 7,8월호 "아세안 지역에서의 표준화 동향"에서 번역, 정리한 것임.

SUCOFINDO(Superintending Company of Indonesia)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실제의 운용에 있어서는 각국의 기관 모두 선진국의 품질보증기구나 검사기관 간에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인증, 공동인증 등의 형태를 취하여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선진국의 검사기관이 검사와 인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종 등장하는 검사기관으로는,

- LLOYD'S REGISTER QUALITY COMPANY(영국)
- ABS QUALITY EVALUATION, INC(미국)
- DNV: DET NORSKE VERITAS AG(노르웨이)
- SGS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ERVICES(프랑스)
- JQA: JAPAN QUALITY ASSURANCE(일본)
- UL: UNDER WRITES' LABORATORY(미국)
- RWTUV: REINISCHER WESTFALISCHER TECHINISCHER UBERWACHUNGS VEREIN(독일) 등이 있다.

## II. 싱가포르

### 1. 가장 빨리 1998년에 ISO9000

#### 시리즈를 도입

싱가포르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이미 품질보증체도가 시작되었다. 당초 그것은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주로 제조업의 다국적 기업이나 국영기업(statutory board company)에 채용되었다. 싱가포르는 제조업의 제2 단계에 대한 전개를 피하고 있어, 기술을 그다지 요하지 않는 제품의 수출에서 고품질제품의

수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저가치의 제품을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하는 공정은 우선 기업의 품질보증정책에서부터 서서히 나타나, 드디어는 ISO9000에서 인정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싱가포르에 ISO9000이 도입된 것은 1988년의 일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싱가포르 내의 다국적 기업, 특히 전자공업기업은 부품공급회사에 ISO9000을 취득하여 최초로 공식적인 벤더로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유럽이나 북미에 대한 수출품은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제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 주요 부품류는 모두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유럽연합이나 북미에 수출되는 제품, 특히 전자제품은 1997년까지 일정한 수준을 획득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싱가포르내의 다국적 기업은 제품의 대부분을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으므로 부품공급회사에 ISO9000의 취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2. 미·일·유럽의 8개 기관 상호승인 체제를 확립

그러나 싱가포르의 ISO9000의 인증기관은 아직 국제적으로 완전한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인증기관으로부터 ISO9000을 취득하여도 해외의 구매기업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싱가포르공업표준연구소인 SISIR은 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승인에 의해 독자적인 「SISIR ISO9000」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인증기관과의 사이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

하여 각 기관의 인증방법을 상호 이해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MOU를 체결하면, 각 기관은 도입조건(Implementation Agreement) 조인전에 타 기관의 기술적 경쟁력에 관한 조건이 ISO에 맞는지 아닌지를 서로 인증 감독한다. 이것은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감사를 하는 대신에 타 기관이 하여, 그 결과에 기초를 두고 인증을 발행하는 것이다. MOU의 활동에 의해 국내기업에게는 주로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다.

- 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얻으려는 기업을 위해 SISIR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질 높은 커스터머 서비스를 한다.
- SISIR가 MOU의 체결처에 대신하여 심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심사에 관련되는 경비 절감이 가능하다.
- 국내기업이 인증기관을 선택할 때 범위가 넓어지며,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하게 된다.
- 인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신하여 SISIR이 모든 조정을 하므로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게 된다.

현재 SISIR은 세계의 주요인증기관과 8가지의 MOU를 체결하고 있다. 그 중 3가지는 완전실시에 까지 이르고 있다. 도입조약(agreements) 및 그 밖의 MOU는 완전실시를 위해 조정 중이다. 상세한 것은 아래와 같다.

- 완전실시 중인 것
  -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 Institution(BSIQA)), 영국
  - 일본품질보증기구(Japan Quality Assu-

rance(JQA)), 일본

- 호주표준·품질보증서비스(Standards Australia Quality Assurance Services(SAQAS)), 호주

• 체결이 끝난 MOU

- 스위스품질보증인증협회(The Swiss Association for Quality Assurance Certification(SQA)), 스위스
- 프랑스품질보증협회(French Association for Quality Assurance(AFAQ)), 프랑스
- 독일품질제도인증협회(German Association for the Certification for Quality System(DQS)), 독일
- 품질관리협회(Quality Management Institute(QMI)), 캐나다
- UL사(Underwriters' Laboratories), 미국

아시아에서 ISO9000을 국가적 인증체도의 기초로 하여 채용한 국가는 1988년의 싱가포르가 처음이었다. SISIR은 ISO9000이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3. ISO9000 취득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

싱가포르에서는 ISO9000 시리즈의 인증을 취득하는 기업을 위해 간편하게 관련 도큐먼트를 작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모두 ISO9000 품질관리시스템의 도입에 15년 이상 관련되어 온 품질 컨설턴트들로, GINTIC제조기술연구소(GINTIC Institute of Manu-

facturing Technology) 및 南洋工科大学의 기계·제조공학부(the School of Mechanical & Production Engineering)로부터 파견되었다. 이 시스템은 QSD(Quality System Documentation)라고 불린다. QSD는 PC상에서 조작가능한 소프트웨어의 하나로, 컴퓨터화에 의해 ISO9000의 개발·도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증취득을 위한 시간과 경비를 삭감하는 효과를 가진다. QSD에는 일련의 제품이 있어, 각각 개별적으로 패키지되어 있다.

QSD 1 : ISO9001 대응 : 1987년

QSD 2 : ISO9002 대응 : 1987년

QSD 3 : ISO9003 대응 : 1987년

#### 4. 1995년 3월말 현재의 취득기업은 363개 사

1995년 3월말까지 싱가포르 내 363개의 기업이 ISO9000 시리즈의 인증취득에 성공하고 있다. 그 중 전체의 77%에 해당하는 281개 사가 제조업이며, 대부분은 선진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나머지는 전체의 7%에 해당하는 25개 사가 무역, 8%에 해당하는 29개 사가 건설, 5%에 해당하는 18개 사가 정보기술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시계열로 보면, 취득기업 수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90년이 15개 사, '92년에 44개 사, '94년에 72개 사로 되어 있다.

#### 5. 병원, 호텔, 부동산업자, 정부 기관도 ISO 취득

싱가포르의 경우 주목해야 할 것은 제조업뿐

아니라, 병원, 호텔, 부동산업자, 운송회사 등 매우 광범위에 걸친 비제조업 기업이 열심히 ISO를 취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취득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례 1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병원인 마운트 엘리자베스 병원의 ISO9002 인증취득 광고기사이다. 이것은 싱가포르의 대표적 일간지인 Straits Times지의 1994년 9월 30일부 기사로 게재된 광고기사인데, 동 병원은 아시아 제1호의 ISO9002 취득병원이라고 되어 있다. 검사를 맡은 곳은 BVQI(Bureau Veritas Quality International)였다.

사례 2는, 이것도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호텔인 만다린 호텔의 취득광고기사로, Straits Times지의 1994년 10월 24일자에 게재되었다. 아시아 호텔에서는 태국의 상글리라 호텔, 싱가포르의 페닉스 호텔 등 잇달아 호텔의 취득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계속 될 것 같다.

사례 3은 싱가포르의 부동산 기업인 ERA사의 ISO9002 취득광고기사이다. 마찬가지로 Straits Times지의 1994년 6월 29일자에 게재되었다. 기사에 의하면, 동사의 부동산 판매훈련방식에 대하여 ISO9002에 의한 인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취득광고기사뿐 아니라 통상의 부동산판매광고에 있어서도 판매사업자가 ISO 인증기업인 것을 명시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사례 4는 그와 같은 광고의 한 예로, Straits Times지의 1995년 1월 19일자에 게재된 콘도미니움 판매광고이다.

이와 같이 ISO9000 시리즈는 일상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고 있어, 소비자를 위한 세일즈 포인트의 하나로서 취급을 받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부기관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ISO 취득을 위한 품질보증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 5와 6은 그와 같은 사례의 일부이다. 우선, 사례 5는 정부의 공공사업담당부서인 공공사업국(PUB: Public Works Department)의 취득광고기사로, 인증을 받은 곳은 싱가포르 정부의 건설사업감독부 국인 건설산업개발국(CIDB: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과 SISIR이 공동으로 작성한 건설사업을 위한 ISO9000 시리즈 표준인 CIDB-SISIR ISO9001에 대한 적합이다. 또 사례 6은 싱가포르 국방부의 일부국인 SCO: Systems & Computer Organization에 대한 ISO9001의 취득광고기사이다.

### Ⅲ. 말레이시아

#### 1. 다국적 기업의 공장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품질관리가 침투

말레이시아에서의 품질관리시스템 추진의 움직임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아세안 국가들보다 빨리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품질관리서클(quality circle)이 이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것이 말레이시아의 다국적 기업의 공장에서 고품질 제품의 생산을 위해 이루어진 최초의 시도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먼저 외국 국적의 다국적 기업이 품질관리 시스템의 설립에 착수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국가적 캠페인을 하여 장려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국내기업이 보다 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공업화정책의 후반에 추진되었다. 최혜국 대우가 없다면 말레이시아의 특혜관세(GSP)는 단계적으로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말레이시아에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자를 매료되게 하는 매력이 있었다. 품질관리 시스템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면, 고품질의 수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결국에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순수출국(net export country)으로서 말레이시아는 고품질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여 장래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뿌리 깊어 있었다.

#### 2. 1987년에 SIRIM이 ISO 승인을 개시

ISO9000은 1987년에 표준이 확립되었는데, 같은 해에 말레이시아의 과학기술환경부의 하부기관인 표준·공업연구소(SIRIM)가 인증기관으로 인정되었다. 또 같은 해 기업으로부터의 ISO9000의 인증신청이 SIRIM에 제출되어, 1988년에 제1호의 인증이 이루어졌다. SIRIM은 기업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영국의 BSI(British Standard Institute)나 미국의 UL의 협력을 얻어 내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영국의 VCA(자동차 관련)나 ASTA(전자·전기 관련)와도 협력관계에 있다.

#### 3. 1994년말의 취득기업 수는 518개 사로 아세안에서 최대

SIRIM이 1988년에 5개 사를 인증한 이래, 인증기업 수는 아래 표와 같이 순조롭게 증가하여 1995년 6월 23일 현재로 619개 사가 되었

〈표〉 말레이시아에 있어서의 ISO9000 취득사 수 추이

연 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신규취득 회사 수	5	10	11	37	79	158	218
누적 회사 수	5	15	26	63	142	300	518

주: SIRIM이 인증한 기업 수

다. 이것은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최대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내의 기업은 SIRIM에 한하지 않고 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도 가능한데, 그와 같은 기업은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SIRIM에서는 SIRIM이 인증한 기업 수만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말레이시아에는 많은 ISO9000 취득기업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말레이시아에는 많은 다국적기업이 입주하고 있어, 이들이 품질관리에 열심이고, 스스로 ISO9000을 취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기업에 대한 부품, 원재료 납품업자에게도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여, 부품, 원재료 메이커에 있어서도 품질관리의식이 침투하고 있어, 자사내의 품질향상을 위해 ISO9000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ISO9000을 취득한 기업의 업종별 구성은 전자·전기산업이 전체의 약 27%로 가장 많고, 화학산업(약 13%)과 폴리머 등의 재료(13%)의 순이다. 또 외자계 기업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자본의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ISO9000을 취득하고 있어, 인정기업의 약 절반정도는 로컬 기업으로 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의 취득도 많다.

#### 4. 품질향상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

SIRIM의 표준·품질부(Standards and Quality Division)에서는 MS(Malaysian Standard)의 작성, MS의 인정 등 제품의 품질보증, 등록업무를 하고 있고 있으며, 그 밖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同部에서만 230명(엔지니어만으로는 9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또 국제무역산업부가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ITAF(Industrial Technical Assistance Fund)제도를 가지고,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자본금 RM250만 이하의 기업)의 품질향상에 50%의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SIRIM의 표준·품질부는 사무국으로서 신청서의 기술면에서의 심사를 맡고 있다. SIRIM의 기술이전부(Technology Transfer Division)에서도 QIP(Quality Improvement Programme)에 의해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

단, 산업계에 대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계몽을 하는 곳은 NPC(National Productivity Cooperation, 말레이시아 생산성공사)로 되어 있다. 표준, 품질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진전을 follow-up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SIRIM의 표준·품질부로서는 국제표준에 맞게 MS(Malaysia Standard)를 작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IV. 인도네시아

### 1. 1994년에 국가적 등록기관 SRQA 가 발족

ISO9000 시리즈 도입 초기, 인도네시아에는 독자적인 인증기관이 없었다. 이를 대신하여 검사·인정을 한 곳은 싱가포르의 공업표준연구소인 SISIR(Singapore Institute of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년동안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독자적인 심사·등록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높아져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제1단계로서, 인도네시아에서는 ISO9000에 관련되는 심사·등록절차를 통괄하는 조직으로서 SUCOFINDO가 설립되었다. SUCOFINDO는 "Superintending Company of Indonesia"의 머릿글자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SUCOFINDO하에 인도네시아에서 최초의 ISO9000의 심사·등록기관으로서 SRQA(Sucofindo. Registrator for Quality Assurance)가 설립되었다. SRQA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심사·등록기관의 인정을 하는 국가 인정심의회(인도네시아에서는 KAN: Komite Akreditasi Nasional, 영어표기로는 Indonesian National Accreditation Council)로부터 1994년 10월 17일에 심사·등록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설립에 있어서는 아세안의 협력정신에 기초를 두고 말레이시아가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 2. 미국, 영국, 독일, 말레이시아, 일본 등과의 협력관계를 모색

제2단계는 심사·등록에 관련되는 요원의 훈련, 필요한 검사실무체제의 구축인데,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외국과의 협력에 의해 이러한 국내체제의 정비를 꾀하려고 하고 있다. 제1호로서 1994년 12월 14일, SUCOFINDO는 독일의 검사기관인 RWTUV(Rheinischer Westfalischer Technischer Überwachungs Verein)와 ISO9000 시리즈에 기초를 두고 품질관리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관계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협력의 내용은 심사체제 정비, 인증, 연구개발, 요원훈련, 안전 및 환경과 같은 폭넓은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 MOU의 체결에 의해, SUCOFINDO는 RWTUV의 심사관을 주심사관(Lead Auditor)으로 하는 공동등록방식(in the form coregistration)에 의해 ISO9000의 등록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SUCOFINDO는 RWTUV와의 협력을 통하여 제품안전 마킹(product safety marking), CE 마킹, 에코 라벨링, 자동차 검사서비스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SUCOFINDO는 미국의 UL(Underwrite Laboratories), 호주의 NATAA(National Association of Testing Authorities, Australia), 말레이시아의 국립표준연구소(SIRIM), 일본의 해상검정협회 등 과도 마찬가지로 MOU를 체결하려는 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 3. 1994년말 취득기업 수는 15개 사

1994년말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ISO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은 15개 사에 불과하다. 업

종별 내역을 보면, 일렉트로닉스·통신이 5개사, 철강, 의약품, 섬유, 식료품이 각 1개사로 되어 있다. 취득기업을 살펴보면, 주요 다국적 기업으로는 AT&T, 제약기업인 룩슈 등이 있으며, 또 인도네시아의 기업으로는 아스트라 그룹의 반도체 기업 Astra Microelectronics Technology사, 국책 케이블 기업 SUCACO사, 국책철강기업 크라카토우사, 네델란드의 호고벤스와의 합병 강관 메이커인 KHI Pipe Industries사 등이 있다.

인증기관으로는 싱가포르의 SISIR이 가장 많고, 이 밖에 영국의 SGS(Societe Geberale de Surveillance)사(SUCACO사의 경우), 미국의 ABS Quality Evaluations Inc 사(크라카토우사의 경우) 등에 의한 사례도 있다. SRQA는 인정기업의 수를 앞으로 연간 100개사의 비율로 늘리려고 하고 있으며, 1995년 현재 약 70개사의 취득신청을 심사 중에 있다.

## V. 태국

### 1. TISI가 ISO9000의 등록기관으로

태국에서의 ISO9000 시리즈의 도입은 1991년에 시작되었다. 태국은 연간 2000억 바츠를 넘는 대폭적인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수출의 확대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수출품목의 상위는 공업제품에서 차지하고 있어서, 공업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여 ISO9000의 도입에도 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공업부(MOI= Ministry of Industry)에 있는 국가기관인 태국산업표준연구소(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가 ISO9000 시리즈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다.

### 2. 1995년 6월말의 취득기업은 40개사를 넘어

1995년 6월말 ISO 취득기업은 현재 40개사를 넘고 있다. 취득기업을 살펴보면, 외자계 기업 뿐 아니라 사이암 시멘트로 대표되는 로컬기업의 취득도 늘어나고 있다. AFTA에 의한 무역 자유화 등을 앞두고, 태국산업계의 ISO9000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주요 취득기업을 살펴보면, 다국적 기업으로는 ESSO사, ICI사, 엘프사, 쉘사 등이 있으며, 로컬기업으로는 사이암 시멘트사 등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아시아 전역에 호텔 체인을 전개하는 상글리라 호텔이 취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 VI. 필리핀

### 1. 1994년부터 전국적 캠페인을 실시

필리핀의 ISO9000에 기초를 둔 품질관리시스템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이 시스템이 국가적 관심사가 된 것은 1992년의 일이다. 1993년부터 1994년이 되자, 필리핀 정부도 국제시장에서 필리핀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관리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1994년, 정부는 전국적 캠페인을 실시하여, 해외의 다국적 기업이 필리핀 내에서 ISO9000의 도입활동을 추진하고 선진국 수출에 맞는 수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시작하였다. 품질관리시스템에 관한 인증을 얻기 위해 필리핀의 검사·인증활동은 무역산



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 제품규격국(BPS: The Bureau of Product Standards)에 위탁하게 되었다.

## 2. 국가등록기관은 1995년에 설립 예정

현재 필리핀에는 ISO9000의 심사등록(인증)기관을 인정하는 국내인정기관은 아직 없다. 무역산업부의 제품규격국은 1992년부터 기대하고 있던 인증업무를 1995년 7월에 종료하고 민간 심사등록(인증)기관의 인정을 할 수 있는 조직변경을 할 예정이다. 현재, 필리핀에서 인증업무를 하고 있는 심사등록(인증)기관은 BPS 이외에 SGS국제인증서비스(SGS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ervices)의 4개 사(SGS, TUV Product Services, TUV Rhineland, Certificate International) 뿐이며, 그 밖에는 BSI, BUQI, KEMA 등 외국으로부터의 출장 심사이다.

## 3. 1994년말 취득기업은 54개 사

1994년말 필리핀에서 ISO9000 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54개 사인데, 대부분은 제조업자로 ISO9002의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몇

개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1994년에 취득한 기업이다. 주요 취득기업을 살펴보면, 다국적 기업으로는 헬사, 필립스사, 반도체 메이커인 ZILOG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 미국의 앤더슨 컨설팅사, 호주의 BHP 등이며, 또 필리핀의 로컬기업으로는 산미젤사 등이 있다.

### 〈참고〉 ISO9000 시리즈 인증취득상황

1. 제1호 취득기업: 필립스사  
1992년에 네델란드의 KEMA에 의해 인증되었다.
2. 연도별 취득기업수
  - ① BPS 인증
    - 1992년 4개 사
    - 1993년 17개 사
    - 1994년 29개 사
    - 합계 50개 사
  - ② SGS 인증
    - 1994년 3개 사(1995년은 7개 사)
  - ③ 외국의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된 것은 통계가 없다.

〈정책동향팀·朴敬善 編譯〉